

고등 내신 1등급을 위한 기출문제집

100발100중

고등 기출 문제집

공통 | 1
국어

1학기·전과정

미래엔
신유식

내신에 남게를 도와 주는 100발100중!



1

문학의 향기

01 서정 갈래와의 만남

산수유나무의 농사_문태준

02 서사 갈래와의 만남

카메라와 워커_박완서

03 극 갈래와의 만남

동주_신연식 각본

04 교술 갈래와의 만남

플 비린내에 대하여_나희덕



산수유나무의 농사_문태준

작가 소개

문태준(1970~)

대상에 대한 섬세한 관찰과 사람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순수 서정의 세계를 드러내는 작품을 주로 씀.

1 참고

서정 갈래의 하위 갈래

고대 가요	고대의 노래. 향가 발생 이전까지의 노래
향가	신라에서 발생하여 고려 초까지 향유된 서정시 갈래. 향찰로 기록됨.
고려 가요	고려 시대 서민의 노래. 소박하고 진솔한 감정을 노래함.
시조	3장, 6구, 45자 내외로 이루어진 시가. 고려 말에 생겨 현대에 이르기까지 창작됨.
민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백성들의 노래
한시	한자로 쓰인 시

■ 반어(反語): 말하려는 내용을 강조하려고 실제와 반대로 표현하는 것

예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 리다

- 김소월, <진달래꽃>

■ 역설(逆說): 표현상으로는 불합리하거나 모순되지만 그 속에 진리를 담아 표현하는 것

예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 유치환, <깃발>

■ 통념(通念): 일반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생각.

1 서정 갈래에 대한 이해

- (1) 개념: 인간의 생각과 정서를 □□이 있는 압축된 언어로 노래하는 문학 양식
- (2) 하위 갈래: 고대 가요, 향가, 고려 가요, 시조, 민요, 한시, 현대 시 등
- (3) 구성 요소와 형상화 방법
 - ① 시적 화자가 등장하여 시적 상황, 정서와 태도 등을 드러낸다.
 - ② 일정한 글자 수, 유사한 단어, 문장 구조 등을 □□하여 운율을 형성한다.
 - ③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을 활용하여 정서와 분위기를 환기한다.
 - ④ 비유, 상징, 반어, 역설 등 다양한 표현 방식을 활용한다.

2 작품 해제

갈래	현대 시, 자유시, 서정시
성격	상징적, 성찰적, 교훈적
제재	산수유나무의 그늘
주제	타인을 □□하는 마음의 중요성
특징	• 일반적인 인식을 벗어나는 참신한 발상으로 시상을 전개함. • ‘그늘’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제시함. • 노란색의 색채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를 형성함. • 자연과 사람의 모습을 대비하여 사람들의 성찰을 유도함.

3 작품의 구성

1~2행	→	3행	→	4~7행	→	8~9행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피워 그늘을 만 들.		□□하는 사람들에 게 산수유나무의 그 늘을 보라고 말함.		산수유나무가 농사 를 지어 그늘을 드리 웁.		산수유나무가 농사 를 지어 노란 좁쌀 다섯 되 무게의 그늘 을 만들.

4 표현상의 특징

통념에서 벗어난 표현으로 대상을 형상화함.	‘그늘도 노랗다’
색채어를 반복하여 선명한 □□적 이미지를 형성함.	‘노란 꽃’, ‘그늘도 노랗다’, ‘노란 좁쌀’
비유적 표현으로 의미를 부각함.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 - 은유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 의인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 의인, 직유
대비를 통해 의미를 강조함.	자연물(‘산수유나무’)과 인간(‘불평하는 사람들’) ‘꽃’과 ‘그늘’(‘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산수유나무의 ‘그늘’과 ‘마음의 그늘’
만질 수도 없고 무게도 없는 대상을 감각적·구체적으로 표현함.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다섯 되 무게의 그늘이다’ → ‘그늘’을 끌어모을 수 있는, 구체적 수치의 무게를 지닌 사물로 표현함.

5 운율 형성 방법

반복	동일한 시어(시구)의 반복	산수유나무, 그늘, 농사, 짓고 있다, 노란(노랗다)
	동일한 종결 표현의 반복	-다, -고 있다
	동일한 □□의 반복과 변주 [■]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동일한 문장 구조의 반복과 대구 [■]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들은 땅에서 넓어진다

① 참고

종결(終結) 표현

문장을 끝맺는 방식. 말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특정한 종결 어미가 사용된다.

■ 변주(變奏): 어떤 주제를 바탕으로, 소재·형태·방식 따위를 변형하여 표현함.

■ 대구(對句): 비슷한 어조나 가락을 지닌 어구를 짝 지어서 표현의 묘미를 살리는 방법

6 화자의 정서 및 태도

대상 ⋮	화자의 정서 및 태도 ⋮
산수유나무	관조함. ‘꽃’이 아니라 ‘□□’에 주목함. ‘그들’을 통념과 다르게 인식함. 삶의 자세를 발견함. 예찬함.
불평하는 사람들	비판함. ‘산수유나무’에서 삶의 자세를 배울 것을 바램.

■ 관조(觀照)하다: 교묘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보다.

7 대비

(1) ‘산수유나무’와 ‘(불평하는) 사람들’

산수유나무	(불평하는) 사람들
그늘 농사를 지어 그늘을 점점 넓혀 감. 다른 존재가 휴식과 위안을 얻을 수 있게 □□함.	마음의 그늘이 점점 옥말려든다고 불평함. 타인을 배려하거나 타인에게 베푸는 것에 인식함.

(2) ‘(산수유나무의) 그늘’과 ‘마음의 그늘’

그늘	마음의 그늘
땅에서 넓어짐. 이타적, 확장적, 긍정적	옥말려듦.(좁아지며 조임.) 개인적, 폐쇄적, 부정적

(3) ‘꽃’과 ‘그늘’

꽃	그늘	
터트리고 있음.	짓고 있음.	… 버금가는 가치를 지님.
노랗다.	노랗다.	… 다른 것을 지향함, 다른 모습으로 구현됨.
□□에서 피어남.	□□에서 넓어짐.	

8 시어 및 시구의 함축적 의미

그늘	다른 존재에 대한 배려, 휴식과 위안의 장소
□□	정성과 노력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가는 일
그늘 농사	다른 존재에 대한 배려는 정성과 노력 속에 이루어진다.
땅에서 넓어진다	배려는 소박한 것, 인간적인 것을 지향하며 확장된다.

정답 1 운율, 반복, 심장 2 배려 3 불평 4 시각 5 문장 6 그늘 7 배려, 하늘, 땅 8 농사

01~0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트리고 있다
 산수유나무는 그들도 노랗다
 마음의 ㉔그들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나무는 ㉕그들을 그냥 드리우는 게 아니다
 그들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
 산수유나무가 ㉖그들 농사를 짓고 있다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㉗그들은 땅에서 넓어진다
 ㉘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다섯 되 무게의 ㉙그들이다

- 문대준, 〈산수유나무의 농사〉

갈래적 특징 이해

01 윗글은 서정 갈래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근거로 제시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간의 생각과 정서를 운율이 있는 압축된 언어로 노래하고 있다.
- ② 유사하거나 동일한 단어, 문장 구조를 반복하며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③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심상을 활용하여 정서와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다.
- ④ 시적 화자를 내세워 시적 상황, 그에 대한 정서와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비유와 반어, 설의적 표현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표현상의 특징 이해

최다 빈출

02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구를 활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② 도치된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자연물이 지닌 능동성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④ 자연의 속성과 인간의 모습을 대비하여 독자의 성찰을 유도하고 있다.
- ⑤ 색채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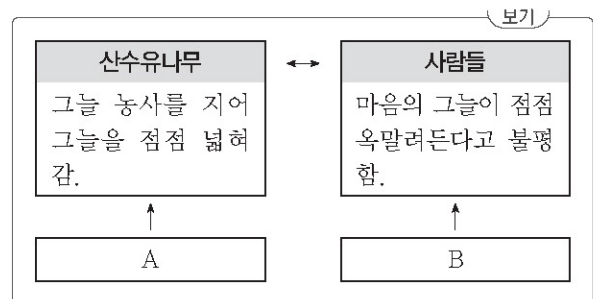
구절의 표현 및 의미 이해

03 윗글의 구절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2행: '그들'이라는 일상적 소재를,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통념과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 ② 3행: 산수유나무의 '그들'을 '마음의 그들'로 내면화하여 자기 성찰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 ③ 5행: '그들'을 '농사'에 비유하여 표현하면서 '농사'의 어려움과 고통을 환기하고 있다.
- ④ 7행: '그들'이 '넓어진다'는 표현을 통해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9행: '그들'의 정도를 중량감을 활용하여 표현하면서 화자가 느끼는 고뇌의 정도를 암시하고 있다.

화자의 태도 이해

04 윗글의 소재를 〈보기〉와 같이 나타낼 때 A와 B에 들어갈 화자의 태도가 바르게 짝 지어진 것은?



- | A | B |
|--------|------|
| ① 동경 | 연민 |
| ② 예찬 | 비판 |
| ③ 수용 | 저항 |
| ④ 동일시 | 도외시 |
| ⑤ 측은지심 | 사양지심 |

구절의 표현과 의미 이해

최다 빈출

0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행위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산수유나무를 농부에 비유하고 있다.
- ② 산수유나무를 행위의 주체로 설정하여 능동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고 있다’라는 현재 진행 표현을 통해 행위의 당위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산수유나무의 행위를 농사를 짓는 것에 빗대어 수고로움과 노력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산수유나무의 행위를 농사로 표현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낳는 긍정적 행동이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시어의 의미 이해

06 <보기>를 참고할 때, ㉠~㉥ 중에서 나머지와 성격이 다른 시어는?

보기

시어는 일상어와 달리 다의성을 지닌다. 이 때문에 한 편의 시에 사용된 동일한 시어라도 문맥이나 시적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 ① ㉠ ② ㉡ ③ ㉢
- ④ ㉣ ⑤ ㉤

주제 파악과 적용

07 윗글에 형상화된 ‘산수유나무’의 모습을 사람에 적용하여 이해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직장에서 은퇴한 후 귀농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은퇴자
- ②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상대방의 약점을 골라 공격하는 권투 선수
- ③ 한번뿐인 인생을 즐기기 위해 수입의 전부를 유흥에 투자하는 젊은이
- ④ 목표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잠시도 쉬지 않고 공부에 전념하는 수험생
- 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기부하고 주말마다 봉사 활동에도 참여하는 직장인

작품의 내용 이해

08 <보기>는 윗글의 내용 전개 양상을 도식화한 것이다. [A]~[D]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2행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피워 그늘을 만들.	[A]
3행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산수유나무의 그늘을 보라고 말함.	[B]
4~7행	산수유나무가 농사를 지어 그늘을 드리움.	[C]
8~9행	산수유나무가 농사를 지어 노란 좁쌀 다섯 되 무게의 그늘을 만들.	[D]

- ① [A]에서, 산수유나무의 ‘그늘’이 산수유나무가 피워 낸 ‘꽃’과 마찬가지로 ‘노랗다’고 표현한 것은, 산수유나무의 ‘그늘’이 ‘꽃’에 버금가는 가치를 지녔음을 부각한 것이겠군.
- ② [B]의 ‘욕말려든다’와 [C]의 ‘넓어진다’는, ‘불평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그늘’과 산수유나무가 ‘짓’는 ‘그늘’이 서로 다른 성격을 지녔음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겠군.
- ③ [C]에서, ‘그늘’을 ‘그냥 드리우는’ 것이 아니라 ‘한 해’ 동안 ‘짓’는 ‘농사’라고 표현한 것은, 산수유나무의 ‘그늘’이 정성과 노력을 들여 만들어 낸 것임을 표현한 것이겠군.
- ④ [C]에서, ‘꽃’은 ‘하늘’과, ‘그늘’은 ‘땅’과 관련된다고 표현한 것은, ‘그늘’이 지닌 본질적 한계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D]에서, ‘그늘’을 ‘노란 좁쌀’에 비유한 것은 노란 색깔을 지닌 농사의 결과물이라는 연상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01~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트리고 있다

산수유나무는 그들도 노랗다

㉠마음의 그들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나무는 ㉡그들을 그냥 드리우는 게 아니다

그들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

산수유나무가 그들 농사를 짓고 있다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들은 땅에서 넓어진다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다섯 되 무게의 그들이다

- 문태준, 〈산수유나무의 농사〉

(나)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는 웬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흰꽃과 분홍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들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눈부셔 눈부셔 알았습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

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 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나무 ㉡그들

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 나희덕,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0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역설적 표현을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경어체를 사용하여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④ (나)와 달리 (가)는 지시어를 반복하여 중심 소재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 ⑤ (가)는 가정적 표현으로, (나)는 도치된 문장으로 마무리하여 소망의 간절함을 부각하고 있다.

고난도

02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비교·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두 작품은 모두 자연물을 활용하여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태도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주제 의식을 구현해 가는 방식은 서로 다르다.

- ① (가)는 화자와 산수유나무를 동일시하면서 공감의 가치를, (나)는 화자와 복숭아나무를 대비하면서 관용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가)는 산수유나무의 모습에서 배려의 가치를, (나)는 복숭아나무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이해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가)는 산수유나무의 변화를 그리면서 인내의 가치를, (나)는 복숭아나무를 바라보는 화자의 변화를 그리면서 성찰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는 산수유나무를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사랑의 가치를, (나)는 복숭아나무를 대하는 화자의 모습에서 신뢰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는 산수유나무의 ‘꽃’과 ‘그들’의 관계에서 평등의 가치를, (나)는 복숭아나무의 ‘흰꽃’과 ‘분홍꽃’의 관계에서 조화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03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목도가 높은 ‘꽃’이 아니라 ‘그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② ‘그늘’을 어둠의 이미지가 아닌 밝고 능동적인 이미지로 그리고 있다.
- ③ ‘산수유나무’의 모습을 사람과 대비하여 삶의 자세를 성찰하게 하고 있다.
- ④ ‘산수유나무’를 ‘농부’에 비유하여 능동성과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그늘’을 넓어지고 무거워지는 것으로 표현하여 비관적 전망을 드러내고 있다.

고난도

2015 6월 모평 A

04 (나)의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대상에 대한 태도가 드러나며 시상이 촉발되는 부분으로, 그중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은 화자가 대상에 대해 거리감을 가지게 되는 이유를 나타낸다.
- ② [B]는 대상에 대한 감정이 행동으로 구체화되는 부분으로, 그중 ‘멀리로 멀리로만’은 화자가 대상을 피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 ③ [C]는 대상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부분으로, 그중 ‘눈부셔 눈부셔’는 화자가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수천의 빔빔’을 발견하는 순간을 강조한다.
- ④ [D]는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나타나는 부분으로, 그중 ‘피우고 싶은 꽃빛’은 화자가 외로움을 이겨 낸 상황을 나타낸다.
- ⑤ [E]는 대상에 대한 깨달음 이후의 상황이 나타나는 부분으로, 그중 ‘조금은 심심한 얼굴’은 화자가 가까이에서 발견한 대상의 또 다른 모습을 나타낸다.

최다 빈출

05 ㉠과 ㉡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현실의 부조리를, ㉡은 미래의 희망을 상징한다.
- ② ㉠은 현실에 대한 만족감을, ㉡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환기한다.
- ③ ㉠은 지난 삶을 성찰하는, ㉡은 현실 극복 의지를 다지는 계기이다.
- ④ ㉠은 화자의 태도가 변화하는, ㉡은 화자의 고뇌가 심화되는 원인이다.
- ⑤ ㉠은 휴식과 위안을 제공하는, ㉡은 대상과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06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대조의 방식을 활용하여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표현하고 있다.
- ③ ㉤: 구체적 수치로 중량감을 표현함으로써 대상의 가치를 부각하고 있다.
- ④ ㉥: 화자의 인식과 대상의 인식을 대비하면서 대상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 시간적 배경을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한탄과 체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01~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트리고 있다
 산수유나무는 그들도 노랗다
 마음의 그늘이 옥팔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드리우는 게 아니다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다섯 되 무게의 그늘이다

- 문태준, <산수유나무의 농사>

최다 빈출

01 윗글에 사용된 비유적 표현을 <보기>와 같이 도식화할 때, ㉠,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단, 윗글에 사용된 시어로 쓸 것.)

산수유나무	=	(㉠)	→ 정성과 노력으로 결과물을 만드는 주체
⋮		⋮	
그늘	=	(㉡)	→ 정성과 노력의 결과물

㉠: _____

㉡: _____

2019 교3 3월 학평 응용

02 윗글에서 함축적 의미가 <보기>의 밑줄 친 말들과 유사한 시어를 찾아 한 단어로 쓰시오.

밭 던고 쉬라고 <u>내줄</u> 곳이 선잠 들라고 <u>내준</u> 무릎이 살아오는 동안 나에겐 없었다	보기
--	----

- 문태준, <극빈> 중

학습활동

03 윗글에 활용된 운율 형성 방법에 대해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1) 종결 표현을 활용한 운율 형성 방법에 대해 서술할 것. (2) 구체적 표현을 찾아 함께 제시할 것. (3) ‘~하는 방법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할 것.	조건
---	----

학습활동

04 다음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형상화된 시행을 윗글에서 각각 찾아 쓰시오.

(1)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하였다.

(2) 일반적인 생각과 다른 색채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긍정적으로 표현하였다.

(3) 만질 수도 없고 무게도 없는 대상을 구체적 수치로 나타내어 감각적으로 표현하였다.

05 ㉠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조건

- (1) 직접적인 태도와, '보아라'라는 말을 통해 드러난 의도를 모두 서술할 것.
- (2) '그들을 ~면서 그들이 ~기를 바라고 있다.'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할 것.
- (3) 30자 내외로 서술할 것.

최다 빈출

06 '산수유나무의) 그늘'이 함축하는 의미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조건

- (1) ㉠과 ㉡에 담긴 의미를 각각 반영하여 서술할 것.
- (2) '㉠으로 보아 ~고, ㉡으로 보아 ~다. 따라서 그들은 ~라는 함축적 의미를 지닌다.'의 형식으로 서술할 것.
- (3) 70자 이내로 서술할 것.

note

01~22 다음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를 하시오.

01 자연물을 활용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형상화하고 있다.

OX

02 ‘그늘’이라는 일상적 소재를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통념과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OX

03 참신한 발상을 바탕으로 대상(‘그늘’)이 지닌 가치를 발견하고 있다.

OX

04 색채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OX

05 시적 화자가 작품의 표면에 등장하여 대상에 대한 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OX

06 ‘산수유나무, 그늘, 농사, 짓고 있다’ 등의 단어와, ‘-다, -고 있다’ 등의 종결 표현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OX

07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라는 문장을 반복, 변주하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OX

08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다.

OX

09 명령형 어조를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OX

10 자연물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을 대비하여 독자의 성찰을 유도하고 있다.

OX

11 ‘아니다’라는 부정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거부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OX

■ 형상화(形象化)하다 형체로는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을 어떤 방법이나 매체를 통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형상으로 나타낸다. 특히 어떤 소재를 예술적으로 재창조하는 일을 이른다.

■ 공감각(共感覺)적 이미지: 원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옮겨서 표현하여 두 가지의 감각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심상.
예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 청각의 시각화

12 행위의 유사성에 근거해 ‘산수유나무’를 ‘농부’에 비유하고 있다.

○ ×

13 ‘산수유나무’에 인격을 부여하여 능동적인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 ×

14 ‘산수유나무’의 행위를 농사를 짓는 것에 빗대어 수고로움과 노력을 부각하고 있다.

○ ×

15 산수유나무의 ‘그늘’에 배려나 휴식, 안식처 등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

16 ‘그늘 농사’라는 표현을 통해, 타인에 대한 배려는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과 같은 정성과 노력이 필요한 일임을 전달하고 있다.

○ ×

17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들은 땅에서 넓어진다’에서 대구와 대조²를 통해 운을 형성하면서 ‘그늘’의 성격을 부각하고 있다.

○ ×

18 ‘꽃’을 이상, ‘그늘’을 현실에 비유하면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그리고 있다.

○ ×

19 만질 수도 없고 무게도 없는 ‘그늘’을 구체적 수치의 중량을 지닌 감각적 대상으로 표현하여 그늘의 가치를 부각하고 있다.

○ ×

20 노란색으로 규정된 ‘그늘’의 색채 이미지와 농사의 결실에 비유된 ‘그늘’의 의미가 결합되어 ‘노란 좁쌀’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 ×

21 시적 화자는 ‘산수유나무’가 보여 주는 삶의 자세를, ‘불평하는 사람들’이 본받아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 ×

22 ‘산수유나무’를 예찬하면서 자연 속에 은거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 ×

■ 대구(對句)와 대조(對照)

대구	대조
맞세우는 방법	
비슷한 어조나 가락을 지닌 어 구를 짝지어서 표현의 묘미를 살리는 방법	서로 반대되는 대상이나 내용을 맞세워 주제를 강조하거나 인상 을 선명하게 하 는 방법

→ 대조법은 의미상 반대인 내용을 맞세우는 것인 반면, 대구법은 의미보다는 비슷한 가락을 맞세웠느냐에 주목하는 것임. 따라서 형식상으로는 대구법, 내용상으로는 대조법인 경우도 있음.

[01~0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광주 비엔날레에서 태국의 수라시 푸술윙이라는 작가의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을 본 적이 있다. 이 작품은 1965년형 자동차에서 엔진과 핸들, 타이어, 새시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차체를 뒤집어 그네 침대로 설치한 것이다. 그네 옆에는 타이어를 비롯한 부속을 재활용해 만든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차체로 만들어진 그네 침대 속에서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동안 나는 타이어를 쌓아 만든 의자 옆에 걸터앉아 그 「감성적 기계」를 바라보았다. 흔히 「달리는 무기」라고 불리는 자동차가 완전히 해체됨으로써 새로운 용도로 거듭난 모습은 예술 고유의 전복성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곱씹어 보게 했다.

그 무렵 나는 초보 딱지도 떼지 않은 상태여서 자동차가 주는 편리와 불안은 아주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다. 면허를 따 놓고도 5년이 넘도록 차를 살 생각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객지로 이사한 후로는 하나부터 열까지 내 손으로 해결해야 했고,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되었다. 물론 처음엔 출퇴근 때나 장을 볼 게 많을 때만 차를 가지고 다녔다. 그러나 마음이 답답할 때 무작정 차를 몰고 교외로 나가는 습관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실제적인 목적 없이도 차를 모는 일이 잦아졌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나를 어디로든 데려다줄 수 있는 밀폐된 공간에 그렇게 조금씩 길들여져 갔다.

스웨덴의 생태학자인 에민 텡스웜은 자동차라는 물건이 “자기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이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해 준다.”라고 말한 바 있다. 현대인들이 자동차라는 ‘아늑한 자궁’으로부터 잠시도 떨어지고 싶어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모순된 욕망을 자동차라는 공간이 해결해 주기 때문일 것이다. 앞에서 말한 「감성적 기계」처럼 자동차를 해체하지 않아도 ㉓자동차는 이미 충분히 「감성적 기계」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㉔자동차에 대한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갑자기 서울에 갈 일이 생겼는데 주말이라 차표를 구할 수 없었다. 몇 번을 망설이다가 나는 초보 주재에 식구들을 태우고 서울로 가는 고속 도로로 접어들었다. 긴장을 해서인지 무사히 서울에 도착해서 일을 보고 다음 날 밤에 광주로 돌아올 수는 있었다. 그런데 밤에 고속 도로를 달리다 보니 차창에 무언가 타닥타닥 부딪치는 소리가 났다. 처음엔 그저 속도 때문에 모래 알갱이 같은 게 튀는 소리려니 했다.

다음 날 아침 출근을 하려는데 유리창은 물론이고 앞 범퍼에 푸르죽죽한 것들이 잔뜩 엉겨 있었다. 그것은 흙먼지가 아니라 수많은 ㉕풀벌레들이 달리는 차체에 부딪쳐 죽은 잔해였다. 마

치 거대한 모터 주위에 두툼게 쌓여 있는 먼지 뭉치처럼 말이다. 그것을 닦아 내려다 나는 지난밤 엄청난 범죄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손발이 후들후들 떨려 도망치듯 세차장으로 갔다. 그러나 세차 기계의 물살에도 엉겨 붙은 풀벌레들의 흔적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㉖풀 비린내는 몸서리치는 기억으로 남았고, 나는 손을 씻고 또 씻었다.

시속 100킬로미터 정도의 속력에 그렇게 많은 풀벌레가 짓이겨졌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지만, 이런 살상의 경험을 모든 운전자들이 초경처럼 겪었으리라는 사실이야말로 나에게서는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다.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이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자각이 그제서야 찾아왔다.

옛날 티베트의 승려들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공기 중의 미생물을 죽이게 될까 봐 얼굴에 일곱 겹의 천을 두르고 다녔다고 한다. 그걸 생각하면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살생 행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차를 없앨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나는 ㉗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정리할 필요를 느꼈다. 차를 유지하되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는 선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감성적 기계」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려는 순간마다 그것이 풀 비린내뿐만 아니라 피비린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자각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

- 나희덕, 〈풀 비린내에 대하여〉

(나)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트리고 있다

산수유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㉘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드리우는 게 아니다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

㉙산수유나무가 ㉚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들은 땅에서 넓어진다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다섯 되 무게의 그늘이다

- 문태준, 〈산수유나무의 농사〉

0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자기 고백적인 어투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열거의 방식을 활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자연물을 통해 바람직하게 여기는 삶의 태도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⑤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면서 현실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0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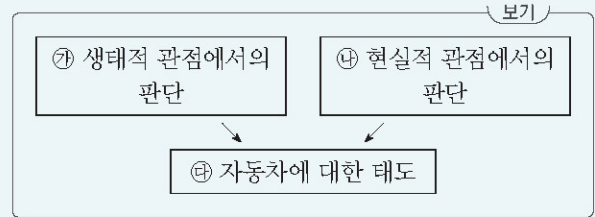
- ① ㉠은 ㉡, ㉢은 ㉣과 대조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 ② ㉡와 ㉢은 모두 예찬의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 ③ ㉢은 ㉠과 ㉡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 ④ ㉢은 ㉠, ㉡은 ㉢의 능동적인 노력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다.
- ⑤ ㉢은 ㉡의 부정적 측면, ㉡은 ㉢의 긍정적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03 (가)의 글쓴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나를 어디로든 데려다줄 수 있는 밀폐된 공간에 그렇게 조금씩 길들여져 갔다’는 것으로 보아, 자동차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느끼는 답답함에 익숙해져 갔던 것 같아.
- ② 자동차에 대해 ‘이미 충분히 ‘감성적 기계’ 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자동차가 지닌 심리적 효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것 같아.
- ③ ‘손을 씻고 또 씻었다’는 것으로 보아, 자신이 풀벌레를 죽게 했다는 사실에 두려움과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아.
- ④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이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자각이 그제서야 찾아왔다’는 것으로 보아, 안락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이기심과 생태적 무관심에 비판적인 인식을 갖게 된 것 같아.
- ⑤ ‘그 ‘감성적 기계’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려는 순간마다 그것이 풀 비린내뿐만 아니라 피비린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자각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으로 보아, 문명의 이기가 주는 안락함에 길들여지는 것을 경계하게 된 것 같아.

0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풀벌레가 글쓴이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부딪쳐 죽은 사건이다.
- ② 차체에 엉겨 있는 죽은 풀벌레들의 잔해로 인해 진상이 드러난다.
- ③ 참혹한 살생 행위로 인식되면서 당혹감과 두려움, 죄의식을 유발한다.
- ④ 모든 운전자들이 공유하는 경험이라는 점에서 글쓴이에게 안도감을 준다.
- ⑤ 글쓴이가 생태 문제에 대해 성찰하고 자동차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된다.

05 <보기>는 (가)의 글쓴이가 **자동차에 대한 태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는 ‘자동차를 몰지 않는 것이 옳다’, ㉣은 ‘차를 몰지 않을 수는 없다.’가 구체적 내용에 해당한다.
- ② ㉡는 자동차를 모는 것은 살상 행위가 된다는 글쓴이의 깨달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③ ㉣은 하루아침에 차를 없앨 수는 없다는 현실적인 고려가 작용한 판단이다.
- ④ ㉢은 자동차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는 것으로 정리된다.
- ⑤ ㉢은 ㉡와 ㉣의 ‘타협’으로 평가되며 만족감을 유도한다.

06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서정 갈래의 핵심적인 표현 방식인 반복은 의미를 강조하고 리듬감을 형성하며, 분위기 조성이나 이미지 형성에 기여하고, 구조적 안정감을 살리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반복은 변주를 통해 구현되기도 한다.

- ① 단어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문장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수미상관 방식의 반복을 통해 구조적 안정감을 살리고 있다.
- ④ 색채어의 반복을 통해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 ⑤ 현재 시제 종결 표현의 반복을 통해 현장감과 생동감을 조성하고 있다.

07 (나)의 화자가 ㉠에게 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에 귀의하여 마음의 평화를 찾으세요.”
- ② “주변의 아픔을 보살피며 감싸 안는 자세를 지녀야 해요.”
- ③ “불평만 하지 말고 개인적 아픔의 원인을 성찰해 보세요.”
- ④ “개인적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좀 더 노력하세요.”
- ⑤ “개인적 아픔을 숨기지만 말고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1 교체: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2 교체의 유형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 끝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자음 이외의 자음이 오면 일곱 개의 자음 중 하나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 [예 부엌[부억], 숲[숭]]
동화	비음화	‘ㄱ, ㄷ, ㅂ’이 비음 ‘ㄴ, ㅁ’의 영향을 받아 비음 [ㅇ, ㄴ, ㅁ]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 [예 먹는[멍는], 맡며느리[만며느리], 밤물[밤물]]
	유음화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 [예 신라[실라], 칼날[칼랄]]
된소리되기		예사소리 ‘ㄱ, ㄷ, ㅂ, ㅅ, ㅈ’이 앞의 소리의 영향을 받아 된소리 [ㄲ, ㄸ, ㅃ, ㅆ, ㅉ]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 [예 웃고름[웃꼬름], 작다[작따], 백발백중[백빨백쥬], 입술[입쑤]]
구개음화		끝소리 ‘ㄷ, ㅌ’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ㅟ’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ㅈ, ㅊ]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 [예 굳이[구지], 같이[가치], 미닫이[미다지], 해돋이[해도지]]

! 참고 순행 동화와 역행 동화

순행 동화	앞 음운의 영향으로 뒤 음운이 바뀜. [예 찰나[찰라]]
역행 동화	뒤 음운의 영향으로 앞 음운이 바뀜. [예 국물[궁물]]

[01~06]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 01**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절 끝에 오는 자음이 [ㄱ, ㄴ, (), ㄹ, ㅁ, ㅂ, ㅇ] 중의 하나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이다.
- 02** 비음화는 비음 앞에서 파열음 ‘()’이 각각 비음 [ㅇ, ㄴ, ㅁ]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이다.
- 03** ‘ㄴ’이 유음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은 ()이다.
- 04** 된소리되기는 ()가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이다.
- 05** 구개음화가 일어나면 ‘ㄷ, ㅌ’이 []으로 바뀌어 소리 난다.
- 06** 구개음화는 실질 형태소 뒤에 () 형태소가 이어질 때 일어난다.

[07~14] 다음 설명이 맞으면 ○, 틀리면 ×표 하시오.

- 07** 교체가 일어나면 음운 수에 변화가 생긴다. ()
- 08** 비음화와 달리 유음화는 순행 동화만 나타난다. ()
- 09** ‘난로[날:로]’, ‘천리[철리]’는 ‘ㄹ’ 뒤의 ‘ㄴ’이 [ㄹ]로 바뀌는 유음화이다. ()
- 10** 된소리되기는 한자어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

- 11** 받침 ‘ㄱ, ㄷ, ㅂ’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해야 한다. ()
- 12** 고유어에서 끝소리 ‘ㄹ’ 뒤에 결합되는 ‘ㄱ, ㄷ,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 13** 구개음화는 어미나 조사, 접사 앞에서만 일어난다. ()
- 14** 한 형태소 내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

[15~19] 적절한 단어를 괄호 안에서 고르시오.

- 15** ‘달성[달썰]’은 음운 교체가 일어난 단어로, 음운 수에 변화가 (있다 / 없다).
- 16** ‘밤물[밤물]’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 비음화)이/가 일어난 단어로, 조음 (방법 / 위치)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 17** ‘난리[날:리]’는 (비음화 / 유음화)가 일어난 단어로, (순행 / 역행) 동화에 해당한다.
- 18** ‘불놀이[불로리]’는 ‘ㄹ’의 (앞 / 뒤)에서 ‘ㄴ’이 [ㄹ]로 바뀌어 소리 난다.
- 19** ‘땀받이[땀바지]’는 (구개음화 /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단어에 해당한다.

20 '국민'을 발음할 때 나타나는 음운 변동을 쓰시오.

21 <보기>의 밑줄 친 단어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 2가지를 순서대로 쓰시오.

(보기)

광수가 어제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맞아서 앞니가 부러졌다.

22 <보기>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을 쓰시오.

(보기)

천리[철리]	광한루[광:할루]
신라[실라]	물난리[물랄리]

23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보기)

'발일'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실질 형태소 뒤에 () 형태소가 결합하였기 때문이다.

24 <보기>의 밑줄 친 단어의 발음과 여기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을 쓰시오.

(보기)

저 산 너머에는 아주 기름진 밭이 있다.

(1) 발음: _____

(2) 음운 변동: _____

25 음운 교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 ① 꽃
- ② 꽃을
- ③ 꽃만
- ④ 꽃밭침
- ⑤ 꽃꽂이

26 음운 변동과 그 사례의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음화 - 권력[꺄력]
- ② 비음화 - 먹는다[멍는다]
- ③ 된소리되기 - 안다[안따]
- ④ 구개음화 - 불이다[부치다]
- ⑤ 음절의 끝소리 규칙 - 맑다[막따]

27 밑줄 친 부분 중 된소리되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 ① 추억을 더들다.
- ② 그 값도 비싸다.
- ③ 닭과 오리를 가두다.
- ④ 신발을 신기가 어렵다.
- ⑤ 서류 제출 기한을 넘기다.

28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동일한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보기)

철수야, 미달이 문을 닫아라.

- ① 마음을 굳히다.
- ② 밥술이 뜨겁다.
- ③ 우리의 밭입니다.
- ④ 홀이불을 덮어라.
- ⑤ 그는 맏이로 태어났다.

29 <보기>의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선생님: 음운의 변동에는 '교체, 축약, 탈락, 첨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에는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되기, 구개음화' 등이 있지요. 그러면 재우가 비음화의 예를 들어 볼까요?

재우: ()을/를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① 밭이
- ② 덮개
- ③ 겉웃음
- ④ 생산량
- ⑤ 줄넘기